

평화의 길 따라 떠나는 예술여행

코리아 로드런, 22~26일 전국 투어 공연
광주에서 출발 부산·울산·경주·포항·대구
뮤지션·화가 참여 음악공연·퍼포먼스 펼쳐
가수 김원중 등 무대 장식...온라인 생중계

‘평화의 길,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 떠나는 신나는 예술여행.’

아시아와 유럽을 육지로 연결하는 도로인 아시아 하이웨이. 아시아 하이웨이1번과 6번 도로는 각각 대구와 부산에 있다. 이 길을 따라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이사장 이계양·이하 코리아 로드 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포항, 대구 등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연다.

‘코리아 로드 런’은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각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평화의 담론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로 2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치유와 화해, 그리고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정읍, 순천, 여수 등에서 공연을 개최, 전국투어의 첫 출발을 알렸다.

올해는 그 두번째 프로젝트로 ‘신나는 평화 예술여행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인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야외형 예술 축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용 무대 차량인 18t 트럭에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지는 예술 콘텐츠를 담은 22일 광주를 출발해 아시아 하이웨이 6번 도로(AH6)의 시작 지점인 부산에 도착, 그 길을 따라 울산(23일), 경주(24일), 포항(25일)까지 달려간다. 26일 아시아 하이웨이 1번 도로(AH1)가 지나는 대구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2020년 전국 투어 공연의 막을 내린다.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인 아시아 하이웨이는 길은 있지만 갈 수 없는, 분단된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아픔의 상징이다. 영남권은 아시아 하이웨이 1번 도로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포항, 대구 등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

(AH1)와 6번 도로(AH6), 두 개의 길이 모두 지나는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부산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AH6)와 부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AH1)가 포함돼 있다.

이번 투어에는 광주에서 출발한 뮤지션, 화가, 시인들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 드로잉 퍼포먼스, 시화전 등을 선보인다.

가수 김원중과 밴드 프로그로·우물안개구리·바닥프로젝트, 기타리스트 박성연,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홍, 작곡가 승지나가 무대에 오른다. 또 그림책 작가 소솔과 동시작가 윤미경의 평화 책 전시도 열린다. 이와 함께 작년 전국투어 공연에 함께한 박관서·임윤·조기현·권선희·이종암·이철산·파재현 등 시인들의 창작시로 만든 시화전이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아가펠라그롭 노래송의 공연과 가수 박경하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경주와 포항에서는 밴드 그리Go, 노래하는 김가영과 기타리스트 고명원, 드러머 장식

원, 심어송라이터 조진영 등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삶을 극에 녹여내는 도도 연극과 교육 연구소 시극, 보컬리스트 이은영의 공연이 준비됐다. 올해는 특별히 ‘팬텀이 잘 될까?’로 알려진 심어송라이터 이한철과 박창근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며, 오월여니합창단의 무대는 사전녹화로 진행, 영상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거리 두기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현장에서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코리아 로드 런’ 페이스 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계획한다. 영상은 편집을 거쳐 유튜브에도 공개된다.

이번 공연의 총연출을 맡은 가수 김원중은 “휴전선을 넘어 시베리아,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까지 길이 열리기를 열망한다”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연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51-0815.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영국 리버풀의 ‘경리단길’쯤 되는 블루코트에는 영화나 등장할 법한 고풍스런 책방이 있다. 올해로 33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과 알린 부부의 ‘커나한 북스’(Kernaghan Books)다. 리버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1717년 건립) 1층에 자리한 서점은 아름다운 안뜰을 품고 있어 서점이라고 보다는 근사한 문화공간 같다. 2년 전 만난 60대 중반의 커나한 부부는 책과 함께 청춘을 보낸 주인공들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브라이언은 영국 버밍엄의 대학에서 지금의 부인인 알린과 함께 살기로 의기투합했다. “어린 시절 책읽기를 좋아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

제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오프라인 서점수는 10년 사이에 36.9%로 줄어든 2312개(2019년 기준). 반면 동네책방은 2015년 101개에서 650개(2020년 3월 기준·퍼니플랜 자료)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얼핏 외형적으로는 풍성해 보이나, 그 이면에는 아름다운 안뜰을 품고 있어 서점이라고 보다는 근사한 문화공간 같다. 2년 전 만난 60대 중반의 커나한 부부는 책과 함께 청춘을 보낸 주인공들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브라이언은 영국 버밍엄의 대학에서 지금의 부인인 알린과 함께 살기로 의기투합했다. “어린 시절 책읽기를 좋아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

동네서점이 사라지게 된다면

위 책을 사서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버지는 종종 도서관에 저를 데려가 마음껏 책을 읽도록 하셨어요.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던 행복한 기억이 게기가 됐죠.”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직업으로 선택한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웠던 건 30여 년간 책방지기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불박이로 버티낸 ‘합’이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클릭 한번이면 편하게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데, 우리 단골들은 일부러 책을 사러 온다.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책방의 독특한 낭만 때문이지요.”

이다. 도정제는 책 가격의 할인폭을 정가의 15%로 제한하는 것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출판계나 작은 서점에겐 인터넷 서점등의 물량공세에 버틸 수 있는 카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일부 젊은 층 사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도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점측은 만일 도정제가 폐지되거나 추가할인이 허용되면 서점 1000개가 문닫게 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제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물리적 공간만은 아니다. 특히 동네책방은 살맛나는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싹틔줄 같은 존재다. 출판의 다양성을 해치는 정부의 도정제 ‘개악’은 재고돼야 한다. “도정제를 포기하는 것은 문화국가로 포기하는 것이다.” 생존 기로에 선 출판·문화단체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다가온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역 문화담론지 ‘창(窓)’ 통권 50호 가을호 나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조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窓)’ 가을호(통권 50호)가 나왔다.

지난 2005년 4월, 재단 창립에 발맞춰 첫 호를 발간한 ‘창(窓)’은 그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비평과 문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

통권 50호 특집으로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내·외부의 눈으로 들여다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속살과 미래’를 조망한다. 재단 창립 과정과 가야할 미래, 시민의 힘과 실천의 시대에 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Special thanks to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체부 지적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하자, 문화운동·문화시민 자긍심 거점 되기까지 다섯 개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펜클럽 광주지구 박성현 회장의 ‘의자와 권력’에 관한 제언이 실렸으며, ‘문화 특목’에서는 전·현직 편집위원장인 김성 광주학생독립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



정희 광주문인협회 수석부회장의 ‘창’ 50호 발간 소회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다뤘다.

아울러 ‘문화 진단’에서는 천덕염 전남대학교 교수가 ‘광주시립 역사민속박물관’ 개관 이후 소회를, ‘문화현장’은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D대표가 ‘광주시민회관의 재탄생 100일’을 들여다봤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이복순 명장의 소리로 마추하는 예술인의 삶에 대해 조명한다.

특히 통권 50호는 우재길 작가의 그림 ‘Light2014-1D’가 표지를 장식해 의미를 더한다.

한편 ‘창(窓)’은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 시민들에게 배포되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83기 정기강좌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10월 3일까지(오후 7시30분)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83기 정기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는 예술심리, 문예비평, 철학, 독서,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가 펼쳐진다.

먼저 월요일 ‘민주시민대학’에서는 안정선 씨가 ‘세대 소통에 따른 심리방어기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 ‘글쓰기교실’에서는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신우진 이사장이 각각 ‘공동체의 선(善)’, ‘목적화-심인심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명혜영 교수와 진정환 씨가 ‘영화로 읽는 인문학-삶, 여성, 가족, 개인’을 모티브로 다양한 토론과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강좌는 무료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전화로 등록,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신춘문예 시 부문 공모

도서출판 상상인과 시전문지 ‘상상인’에서 2021년 상상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시 부문(자유)이며 상금은 200만원. 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창작시 5편 이상 10편 이내를 응모하면 된다.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이메일로만 접수·지정 마감)까지다. 응모작품은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매체에도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이

여야 하며 원고의 앞면 별지에 인적사항(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 발표작이거나 표절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와 상금이 회수된다. 당선작 발표는 2021년 창간호(1월)이며 작품 접수는 상상인 이메일(ssaangin@hanmail.net)로 하면 된다. 문의 010-7371-1871. /박성현 기자 skypark@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
|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 명품옷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머니떡 ☎ 062)526-4629, 010-5474-4629 |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닭발즙·참죽·포도즙 각종고춧가루 ☎ 062)224-9559, 010-3617-9779 |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로본) 휴업소당, 돼지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돼지기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 명품크리닝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키·키즈·운동화·가방·캐디트셔츠·복합·수선일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